



School of Economics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m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제001 호 발간일 :1999 년 05 월00 일

→ 창간사

경제학부 소식/지

창간사
경제학부소식
동문기고
편집인후기



경제학부장 교수 이 천 표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부가 1995년 10월 10일에 정식으로 발족한 이래 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거 상과대학이 분할되어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와 무역학과로 된 다음 무역학과가 다시 국제경제학과로 개칭되었다가 경제학부로 통합된 것입니다. 통합이래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과와 양과체제에서 우리는 항상 이 나라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는 일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여 현실에 만족한 채 발전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라 경제문제 해결의 지혜를 찾아 더 열심히 연구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그 노력의 산물로 경제학부가 출범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분리 운영의 과정에서 형성된 모순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경제학부라고 하는 단일체제로 융합하는 작업에 애써왔는데 이제 그 열매를 맺어 경제학부는 명실공히 이 나라의 21세기 경제학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최고의 상아탑으로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초대 학부장 김중현 교수와 제2대 학부장 정운찬 교수 (상대 66년 입학), 제3대 학부장 이승훈 교수에 이어 저에 이르기까지 경제학부는 새로운 밀레니엄에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적 정치작업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에서 동문 여러분들에게 경제학부의 최근 동향을 전하는 경제학부소식을 발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학부에는 교수 32명 (2명은 인선완료 부임예정) 과 조교 6명, 그리고 행정직원 6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연구소에는 조교 4명, 사서 1명과 행정직원 2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학사과정 1,026명, 석사과정 82명 그리고 박사과정 23명으로 구성된 경제학부의 대가족은 이들 인력의 지원 속에서 오늘날 면학의 열기를 누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학창시절 동문 여러분들이 경험한 과정을 한 층 더 정비된 환경에서 경험 하면서 젊은 꿈을 키우고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훌륭한 교육적 환경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경제학부의 교육 및 연구의 여건은 세계수준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약조건 속에서 여러분의 자랑스런 후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하여 안심하게 만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경제학부가 출범한 이후 선후배 간 만남의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동문과의 대화라고 하는 만남의 장을 준비하였습니다. 1997년 1학기 신영복 동문 (상대 59년 입학), 2학기 정몽준 동문 (상대 70년 입학), 1998년 1학기 조순 동문 (상대 46년 입학), 그리고 2학기 진념 동문 (상대 59년 입학) 을 모시고 4회에 걸친 선배초청 강연회를 가졌고 1998년 2학기에는 전체 학사과정 학생 수의 10%에 이르는 여학생들을 위하여 서영경 동문 (경제 82년 입학), 이해훈 동문 (경제 82년 입학), 조성욱 동문 (경제 82년 입학)과 김수영 동문 (경제 87년 입학)을 초청하여 여학생 선후배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후배간의 만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선후배간 만남뿐만 아니라 선배 동문들이 기증해 주는 상대 동창회 장학금을 비롯하여 경제학부 발전기금은 후배들의 연구와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동문 여러분들의 보살핌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경제학부가 당면한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전문적 실무교육을 보장하는 일과 장학제원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경제환경을 넘보다 먼저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하여 신질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를 담당할 고급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제학부에서는 현재의 대학원 석사과정에 고급전문 인력과정을 병행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금융시장동향과 새로운 금융상품의 전문가, 통일을 대비한 북한경제전문가, 세계화시대 신경제질서 전문가, 규제완화 전문가, 교토 기후협약 이후 환경 에너지 전문가 등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급전문실무인력은 너무나도 많기에, 경제학부에서는 이러한 고급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인력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여 고급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경제학 본령의 연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학부를 세계적 수준의 경제학 교육 및 연구단위로 발전시키는 일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

학부 교수진의 연구 역량은 명실공히 한국의 제일이며 신진 교수들의 연구실적은 이미 세계 일류대학 교수들의 연구실적에 필적할만 합니다. 앞으로 경제학부의 연구역량을 한 층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의 교육, 특히 박사과정의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석사과정 재학생의 절반 정도는 석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산업부문에 취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생들의 대부분은 해외 유학을 떠납니다. 한국경제사를 비롯한 몇몇 특수분야의 학생들만 모교에서의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박사과정은 특정분야에만 치우치고 석사과정은 해외유학의 중간 경유과정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확충하는데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충분한 장학제원을 확보하는 일은 시급합니다. 너무 많은 대학원생들이 생계유지와 학비 조달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학교에 머무를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실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박사과정의 젊은 학생들이 연구에만 몰두하면서 끊임없이 교수들과 교류하지 못하는 경우 대학원 교육을 매개로 하는 신진학자와

교수의 연구역량은 사장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본 학부에서는 대학원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감당할 수 있는 장학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앞으로 계속 띄워드릴 경제학부소식을 통하여 경제학부의 발전 모습을 그때그때 생생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스런 후배들이 여러분들에 손색없는 인재로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후배를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켜보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P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SCHOOL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지난호 바로가기 제1호 ▼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m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chool of Economics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m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제001 호 발간일 :1999 년 05 월00 일

→ 경제학부소식

경제학부 소식/지

창간사

경제학부소식

동문기고

편집인후기

교수동정

1. 해외체류연구

김수행(상대61년입학)	영국	해외연수	1998. 7. 1~ 1999. 6.30
정운찬(상대66년입학)	독일	Bochum대학파견	1999. 3. 1~ 1999. 5.29
표학길(상대66년입학)	일본	동경대학	1998. 9. 1~ 1999. 8.31
이근(경제79년입학)	미국	캘리포니아대학(Davis) 파견	1999. 1.31~ 1999. 7.31

2. 인사

송병탁(상대59년입학)	서울대학교부총장	1998.11.27~ 2000.11.26
이천표(상대63년입학)	경제학부장	1999. 4.24~ 2001. 4.23
이준구(상대68년입학)	대학원 응용경제학 전공주임	1999. 4.24~ 2001. 4.23
홍기현(경제76년입학)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이사겸직	1999. 2.24~ 2000.12.19

신임교수

김대일(金大逸)

- 경제80년 입학
- 노동경제학 전공, 1998. 9. 1. 임용
- 주요학력 : 서울대 경제학사(1984),
시카고대 경제학석사(1987),
시카고대 경제학박사(1992)
- 주요경력 : 라이스대 조교수(1992~1996),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1996~1998)

이철희(李澈羲)

- 경제 83년 입학
- 미국경제사 전공, 1998. 9. 1. 임용
- 주요학력 : 서울대 경제학사(1988),
서울대 경제학석사(1990),
시카고대 경제학박사(1996)
- 주요경력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1990~1991),
시카고대인구경제학연구소 연구원(1996~1997),
병행턴 뉴욕주립대 조교수(1997~1998)

최재필(崔宰弼)

- 경제 78년 입학
- 산업조직론 전공, 1999. 3. 1. 임용
- 주요학력 : 서울대 경제학사(1982),
하버드대 경제학박사(1990)
- 주요경력 : 콜롬비아대 조교수(1990~1996)
콜롬비아대 부교수(1996~1999)

학부행사

1. 교무관계

- 1999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정시모집 전형
- 지원 접수 : 1998.12.28.(월) - 1998.12.30.(수)
- 대학별 고사 및 면접고사 : 1999. 1. 11.(월)
- 206명 선발
- 199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시행
- 1999. 2. 26.(금) 14:00 체육관
- 학사 : 190명, 석사 : 19명, 박사 : 3명(김흥종, 임일섭, 정진호)
- 1999학년도 입학식 시행
- 1999. 3. 2.(화) 11:00 체육관
- 학사 : 222명, 석사 : 42명, 박사 : 13명

2. 학생관계

- 상대동창회 상대동창회장상 및 우수논문상 시상
- 시상 : 1999. 2. 23.(화)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
- 상대동창회장상:이태석, 우수논문상:김원용
- 98학년도 전기 졸업포상자 시상
- 시상 : 1999. 2. 26.(금) 오전 10시, 16동 311호
- 최우등졸업자 : 이태석, 김원용, 박종현, 정우진
- 99학년도 경제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 1999. 3. 2.(화) 오후 1시, 박물관
- 교수 19명과 조교 5명, 신입생 200여명 참석
- 99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 1999. 3. 11.(목) 오후 5시, 16동 104호
- 교수 11명과 조교 2명, 대학원 신입생 35명 참석
- 99학년도 산학협동 대학생 초청 포럼
- 1999. 5. 7 - 1999. 5. 8 중소기업개발원
- 초청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 기타

- 조교 신규임용
- 박병훈(1999. 3. 3.자) : 김혜원 후임
- 김찬수(1999. 4. 1.자) : 부동식 후임
- 기금조교(전산) 교체
- 김남석 : 임기만료(1999. 2. 28.자)
- 이재성 : 신규임용(1999. 3. 1.자)

▲ UP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SCHOOL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지난호 바로가기 제1호 ▼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m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chool of Economics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m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제001 호 발간일 :1999 년 05 월00 일

→ 동문기고

경제학부 소식/지

창간사

경제학부소식

동문기고

편집인후기

懺悔錄序

經濟學部 敎授 安 秉 直 (상대 57년 입학)

停年이 코앞으로 닥쳐오니, 자꾸 지나간 날들이 회想된다.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너무나 길었던 지난 30여년간의 교원생활을 뒤돌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안에 지금까지 벌려놓았던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 할까 해서이다. 지난 일들중에는 내놓을 만한 일보다 감추고 싶은 일이 더 많다. 懺悔의 心情으로 이 글을 쓰지 않으면 眞實이 가려질 것 같다.

20대에 본교의 교원생활을 시작하면서, 靑雲의 꿈은 참으로 컸다. 나라의 잘못된 일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뜻은 지금도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뜻을 實現하는 方法이 옳지 못했던 것이다. 나라일을 바로 잡는다는 名目으로, 연구생활도 하고, 민주화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그 때의 내 모습은 全人의 人格을 추구하는 傳統의 人間像임에 틀림없었다. 대학에서 스승으로부터 근대적 職業倫理에 관한 강의도 듣고 거기에 공감하는 바도 없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또 한국경제사를 전공하는 자로서 經世濟民의 낡은 학문관을 극복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禁慾의 직업윤리에 의한 自己統制는 뒤틀전으로 밀리고, 생활은 한없는 立身出世의 욕망에 이끌려갔던 것이다.

이러한 내 生涯에 대하여 시대사정에서 그 변명을 구하자면, 못 구할 것도 없어보인다. 나의 60평생은 진실로 波瀾萬丈의 세월이었다. 정치는 戰爭과 革命으로 얼룩지고, 경제는 牧歌의 농촌생활로부터 분단수련 도시생활로 끊임없이 轉變해갔다. 그 속에서 나의 생활은 스스로의 욕심에 더하여 밖으로부터의 요구에 이끌려 이리저리 찢겨진 것이다. 말하자면, 무엇을 하는 인간인지도 모르게 되고 말았다.

그러했던 가운데서도 오늘날의 나의 생활이 스스로에게도 이상하리 만큼 안정을 찾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이제 나이도 들만큼 들고, 기력도 다소 쇠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간에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이 점점 명백하게 됨으로써 그것에 대한 나의 인식이 크게 整理된데 힘입은 바 크다. 적어도 나에게 한국사회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懷疑할 필요가 없어보인다.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도 뚜렷하고 現實의으로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韓國經濟史學界와 서울대학교 經濟學部의 학문적 분위기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젊은 연구자사이에서는 오로지 연구에만 沒頭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개 國際一流저널에 논문을 몇 편씩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조금 불안한 것은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外國留學派라는 점이다. 우리 대학 스스로가 만들어 내지 못하는 研究姿勢를 해외에서 배워오는 일은 獎勵해야 할지언정 조금도 깎아내릴 일은 아니다. 다만, 그 자세가 이 척박한 연구풍토에 定着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難關이 있음이 걱정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크게 염려할 것까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이제 국내에서 대학원과정을 밟은 연구자중에서도 위와같은 研究姿勢를 가지는 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한국사회도 그 발전방향을 점점 명백히 드러내고 있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자들도 종전과는 다른 삶을 영위해가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종래와 같이 全人의 人間像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專攻을 통하여 전체에 봉사하는 새로운 人間像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출현되기를 嚮待해야만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懺悔만으로서 충분한가? 과거에 해놓은 일은 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다가 버

린 쓰레기들을 뒤져보니, 그중에서 몇 점인가는 살릴 만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아무튼 살려가고 싶은 것은 한국근대경제사를 經濟成長史의 視角에서 정리하는 일이다. 이 분야는 計量經濟史의 主舞臺이므로 나와 같은 制度史研究者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연구주제이기도 하지만, 기성연구자가 부족한 우리의 실정에서는 나같은 사람이라도 나서지 않으면 이 분야의 연구는 당분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한국이 中進國에서 先進國으로 移行하려는데 있어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必須不可缺하다. 왜냐하면, 그 연구는 과거 1백년간의 한국경제성장의 경험을 計量的으로 정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經驗的 資料를 토대로 해서만이 과거의 經驗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未來의 展望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數10년의 기간을 두고 數10명의 연구자가 數100億의 연구비를 가지고 수행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연구프로젝트는 또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학연구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媒介項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공시켜야 한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연구생활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專念할까 한다. 이 생활이 과거의 잘못된 생활에 대한 진실한 참회가 되기를 빌면서...

동창기고

새 천년을 主導하는 創造의 少數가 되어 주기를

前 財政經濟部長官 李 揆 成
(상대 58년 입학)

지금 우리는 歴史的 大轉換期를 맞고 있다. 세계 경제는 각 나라가 서로 連繫를 갖는 차원을 뛰어넘어 빠른 속도로 統合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 등 情報通信技術의 발전을 매개로 국경없는 하나의 地球村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의 선도에 선 것이 바로 경제부문이다. 여기에 知識이 附加價值 創出과 새로운 成長의 源泉으로 擡頭되면서 세계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다.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경쟁의 시대를 맞아 知識의 共有와 活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大轉換期에 [경제학부 소식] 지가 創刊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경제학부 소식] 지가 경제학부 同門, 教授, 學生들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식을 연결해주는 情報 媒介體로서 시대변화를 선도해 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시기를 바란다.

지난 한해 우리 경제는 未曾有의 經濟危機를 맞이하여 기업도산의 속출, 대량 실업의 발생 등 엄청난 試鍊과 苦痛을 겪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은 이 엄청난 어려움의 근원은 역사적 대전환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적응하지 못한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경험한 위기는 적응의 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온 국민이 노력하여 외환유동성위기를 수습하고 위기의 根本原因인 우리 경제의 構造的 脆弱性を 치유하기 위한 構造改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우리가 각고의 노력으로 마련한 구조개혁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우리경제의 運用能力을 강화해가는 內實化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작년 한해 올바른 政策的 判斷과 對應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경제학부 동문들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의 助言과 叱責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關心을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어 同門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학부에 거는 기대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그동안 우수한 경제학자들이 많이 輩出되었고, 학문적인 成果가 蓄積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경제의 現實을 診斷하고 處方하는 이론을 定立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21세기 한국경제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서로 경쟁하고 협력해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학부가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둘째로 경제학부가 경제학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교육여건이 외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지만 경제학부의 훌륭한 교수진과 우수한 학생들이 서로 의기투합하여 研究意志를 불태우고 학문적인 발전을 이룩해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경제학상 受賞者가 誕生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지금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經濟學部 後輩들이 主役이 될 21世紀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希望의 世紀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대전환을 이루는 挑戰의 世紀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準備가 필요하다. 학창시절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소중한 시기로 활용하기를 바라면서 경제학부 후배들에게 몇 가지를 提言하고자 한다.

학창시절에는 자신의 能力을 培養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제 세상은 學問이나 背景보다는 能力에 따라 待遇받는 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더욱이 세계무대에서는 능력만이 유일한 생존요소이다. 능력도 단순히 무엇을 아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問題를 解決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과 함께 創意성과 個性을 길러야 한다.

다음으로는 思考와 行動에 있어서 均衡感覺을 갖추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회현상을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요인들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측면만을 강조해서 현상을 바라보다가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학창시절에는 선부는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다양한 分野의 書籍을 접하고, 폭 넓게 사고하면서 視野를 擴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國際的인 感覺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한다. 우리의 활동 무대는 이제 국내가 아니라 전세계이다.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國際人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意識과 慣行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일치시켜 가야 한다. 또한 국내경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변화와 동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創造的 少數(creative minority)로서의 역할을 당부한다. 알프레드 마샬이 말한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사회에 대한 愛情과 獻身을 바탕으로 社會變化의 主役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변화를 주도해가는 先導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 經濟學部 家族들이 우리경제가 새롭게 재도약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여러 모두의 健勝과 發展을 祈願한다.

학생기고

새내기 2개월

경제학부 1학년
김작겸, 배정훈, 차세운

어느 학생에게나 그럴듯이, '서울대'란 우리에게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고등학교 때, 아니, 그 이전 중학교 때부터 까지도, '서울대'란 우리에게 무의식중에 하나의 커다란 목표로 자리잡고 있었다. 사실, 그 당시는 사회인도 아닌 그야말로 순수한 학생이었던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길이란 공부하는 것뿐이었고, 그러므로 '공부'의 길로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단계로 알려진 서울대생이 되는 것이야말로 일반적인 학생의 최고의 목표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아니, 3학년 1학기까지도 '서울대'란 단지 막연한 동경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대학에서의 전공과, 공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념 없이, 즉, '서울대 XX과'가 아닌, 단지 '서울대'라는 이름만 바라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만 열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대학 입학 이후의 일까지, 예컨대 진로 등의 것들까지 신경쓰기에는 일반적인 학생로서는 너무 여유가 없었다.

우리 학창시절의 목표가 '서울대'가 아닌 '서울대 경제학부'로 다가온 것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특히 입시철이 되어서였다. 고등학교적인 사고방식으로, 공부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 때, 과, 전공의 결정이 향후 수십 년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주위 사람들의 '섬뜩한' 말을 듣고, 그제서야 진로에 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다. 그 때가 사실, 우리에게는 최초로 인생에 있어 중대한 결정을 해야하는, 실로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매우 극적인 시기였다. 결론은 경제학부였다. 솔직히, 당시 IMF라는 경제위기 상황이, 경제라는 학문에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경제에 관한 학문적 흥미 역시 적잖이 작용했다. 물론, 경제에 관해 아는 바는 거의 없었지만, 그나마 기본적인 그야말로 기본적인 소양과 얕은 지식 한두 가지로 미루어 보건대, 해볼 만한 학문이라 여겼다. 그래서 결국, 약간 배짱을 부려서 경제학부에 지원을 하고 결과는 다행히 좋았다. 결국 '서울대 경제학부생'이라는 칭호를 달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서울대 경제학부생으로서의 생활도 거의 2달이 흘러갔다. 생활 공간이 달라지는 만큼 생활 모습도 적잖이 달라 지리라는 것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변화는 너무나도 현격한 것이었다. 솔직히, 지난 삶의 모습은 어느 정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지만, 대학 생활은 너무나도 달랐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처신 방법도 물론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될지 나쁜 방향으로 될지는 순전히 우리의 몫이고....

하지만 돌아켜보면, 대학생이 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 모습의 변화는 그다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다. 대학 생활이 우리에게, 거의 무한한 자유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유 속에서, 자기 삶의 모습을 확실하게 찾는 것이 곧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한 가지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엄청 두리뭉실한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유흥, 학업, 취미 생활 등등,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냥 이리저리 부화뇌동하며 수박 겉 핥기식의 삶이었다. 솔직히, 자기의 길을 확실하게 찾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매일같이 화끈하게 노는 소위 '폐인'들도 부러울 때가 많았다. 그 모든 것이 후의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될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의 증진이야말로 자유의 가장 큰 이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단지 게으름만 피우며, 대학 생활의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이 여태까지의 생활 중 가장 큰 후회이다.

흔히, 사람들에게는 대개 '서울대 경제학부생'이라 하면, 적잖이 학구적이고 사명감있는 학생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실, 학교 2개월을 다녔어도, 경제에 관한 지식은 솔직히 고등학교 때보다 결코 많아지지는 않았다. 비록 아직 대학의 시작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기대되는 모습에 우리의 생활을 비추어보면, 지나치게 부끄러움만 앞선다. 단지, 좋은 대학의 대학생이라는 간판만 앞세웠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앞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생으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매사에 열심히 하는 진정한 생활인같은 대학생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해야겠다.

One Fine Day with Economics

경제학부 4학년 신 영 기

어느덧 관악에서 네 번째 봄을 맞이한다. 경쟁하듯 피어나는 개나리와 화려한 벚꽃으로 그 서막을 알린 '관악의 봄'은, 철쭉이 울긋불긋 온 교정을 뒤덮으면서 곧 다가올 여름을 위해 서서히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설레임이 함박 담긴 새내기의 재잘거림은 절은날의 추억을 뒤로한 채 새로운 사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졸업생의 아쉬움 섞인 인사와 어우러져 묘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이따때면 언제나 일어나는 만남과 헤어짐이지만 올해는 어느 해와는 달리 그 느낌이 다소 강하게 다가온다. 이제 나 역시 정든 교정을 서서히 떠날 채비를 해야 하기 때문일까? 졸업을 1년 정도 앞둔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며 또 경제학부와 함께 하며 지내온 지난 3년간의 대학 생활을 되 돌아본다.

나는 새내기가 아님에도 여전히 이곳,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설레임을 느낀다. 아마도 이는 시대를 초월해 대학이 품고있는 다양한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활짝 열린 가능성을 마주하며 우리는 다양한 것들에 관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과 행동의 책임은 이제 스스로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터부와 타성에 젖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그 가운데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힘든 고민과 결정의 산물은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축적되고, 겨우 발아기를 거친 우리들의 의식을 성숙한 지성으로 이끈다. 수업 시간에 어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친구입니다. 동거나 선배와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은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식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돌아켜보면 이곳 경제학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함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뿐 아니라, 이미 졸업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선배를 만날 기회도 꽤 많았다. 사회 곳곳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선배들의 모습은 우리 과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아닐까? 이들 선배들의 이야기는 다양한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부의 졸업생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과 책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친구들과의 토론은 언제나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경제학부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까닭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친구들의 문제의식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문학과 철학을 위시

한 인문학적 관심에서부터 예술에 대한 관심, 전공인 경제학, 그리고 사회적 현안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제인식의 스펙트럼과 그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들으면서 나 역시 관심의 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 이처럼 경제학부라는 공간은 내가 전인적 개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양분을 공급해주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이런 공간과의 조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생활을 더욱 아쉽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경제학부라는 추상적 공간과 아울러 나의 대학 생활을 이끈 또 다른 축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다. 대개의 고등학생들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그다지 많은 정보를 갖지 않은 채, 단지 경제학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바탕으로 전공을 선택했다.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적성과 맞지 않아 새로운 고민에 봉착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많이 봤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나는 꽤 운이 좋았다. 경제학의 대상과 분석 도구가 모두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경제학이 다루는 대상은 사회 현상이다. 사회가 독립된 하나의 유기체나, 아니면 단순한 인간의 집합이나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어쨌든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라는 개념 역시 존립할 수 없고, 당연히 우리가 분석하는 사회 현상 역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경제학은 인문학과는 조금 상이한 방법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 경제학의 분석 도구는 자연 과학과 유사하다. 수학적인 논리와 통계적 검증, 이론의 엄격한 내적 적합성 요구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했다. 물론 아직 학부생이라 학문에 임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그를 위한 준비와 연습, 그리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직관을 키우고 있다는 표현이 올바른 것이다. 비록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본격적으로 다가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현상의 큰 줄기인 경제적 문제에 대해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지난 3년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2학년 때 참여한 「경제학부 심포지엄」은 1년간의 힘든 준비 기간 동안 교과서를 벗어나 경제 문제를 스스로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조악한 수준의 연구와 발표였지만 나름대로 경제학 공부의 보람과 의의를 배가시킬 수 있었다.

이제 졸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진로의 선택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크게 다가온다. 교정에서 마주치는 다른 동기들도 비슷한 고민을 토로한다. 다양하게 열려 있는 가능성은 어떤 면에서 선택의 문제라는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 준 것이다. 나의 경우 지난 3년 간 경제학을 접하면서 학부 졸업 후에 좀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의 무용성을 이야기한다. 심지어 톨스토이는 학문 전체의 무의미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학문은 무의미한 존재다. 왜냐하면 학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

요한 문제인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로 결정을 앞두고, 게다가 학자라는 선택을 중요한 보기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 주장에 대한 대
답을 구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아직 미미한 수준의 학문적 소양을 가진 상태지만 나름대로 결론을 내
렸다. 삶과 관련한 절대적 진리의 추구만을 위해 학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학문의 영역
보다는 종교나 예술의 영역에서 해결책을 구하는 게 나을 것이다. 학문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
를 확장시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면 나의 진로를 아무런 미련없이
선택해야 하겠지만, 진로라는 문제는 그밖의 여러 가지 제약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에 아직도 판단을 내
리기에는 혼란스러운 상태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그 책임을 감수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므로 잘 결정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수많은 선배들도 이미 앞서서 이런 선택을 해 나가지 않았던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가 교정에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하루를 마감한 학우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집으로 발걸음
을 옮기고 있다.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갔고, 거기엔 보람과 아쉬움이 함께 묻혀 있다.
그러나 흘러간 시간 보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훨씬 많은 까닭에 더욱 힘을 얻고 생활을 정진해 간다. 이마를
스치는 산들바람이 더욱 기분 좋은 오후다.

▲ LIP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SCHOOL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지난호 바로가기 제1호 ▼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m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chool of Economics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m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제001 호 발간일 :1999 년 05 월00 일

→ 편집인 후기

경제학부 소식지

창간사
경제학부 소식
동문기고
편집인 후기

경제학부 소식지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상대 해체 이전의 상대 동문 전체와 해체 이후의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경제학과 동문과 현재의 경제학부간 대화가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 동문 여러분의 우리 학부에 대한 많은 물적·심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부의 소식을 동문 여러분께 제때 제때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창간되는 경제학부 소식지가 그 같은 공백을 줄일 수 있기를 바라며 동문 여러분의 격려 및 조언을 기대합니다. 현재로서는 1년에 두차례 발간할 예정입니다만, 동문 여러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간 횟수를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P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SCHOOL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지난호 바로가기 제1호 ▼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m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